



보성 차밭 화려한 빛축제 제16회 '보성 차밭 빛축제' 개막을 앞두고 12일 보성읍 한국차문화공원 일대 녹차밭을 LED 조명이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다.보성 차밭 빛축제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손 잡아야 '관광 호남' 뜬다

정도 1000년 '전라도 방문의 해' 대대적 홍보에도 기대 못미쳐
속박·편의시설·문화 자산·콘텐츠 등 융복합 전략 마련 시급

광주와 전남도 등이 정도 1000년을 맞아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관광객 유치 등은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숙박·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올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관광객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되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서남권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올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관광객 유치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광주비엔날레, 전남도 수목비엔날레, 함평 국향대전, 명량대첩 축제 등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의 다양한 축제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남은 지난해 수준인 50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관광실태 여전히 암울=최근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읍)이 주최한 지역관광활성화세미나에서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관광이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호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래 관광객 1333만명 가운데 호남권을 찾은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대부분 서울(78.0%), 제주(20.2%)에 집중됐다.

지역 관광사업체들이 영세하고, 종사자 수도 적었다. 호남을 찾은 국내 유입관광객은 전체의 13.6%였으며, 이들은 여행기간이 짧고, 지출비용도 낮은 편이었다. 특히 광주·전남 내 여행객들의 50%가 여수·순천 등 동부권에 집중됐다. 광주, 해남, 강진, 장흥, 보성, 담양이 그 뒤를 이었다. 풍부한 자원과 콘텐츠를 가진 전남 서부권이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와 전남은 숙박여행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주

가 2.1%, 전남이 8.8%, 당일여행은 광주 1.5%, 전남 6.3%의 비중을 보였다.

◇광주·전남·전북, 콘텐츠 및 기반시설 등 융복합 전략 시급=거점도시인 광주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전남·전북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중장단지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전남 서남권, 전북 중부권 등 관광 자원은 가졌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지역에 대한 홍보·마케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콘텐츠 파워가 지역관광경쟁력의 원천이며, 사람과 시스템 중심의 혁신주도형 관광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관광인재 육성과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관광 거버넌스 체계 확립 ▲허브(Hub)&스포크(Spoke) 기능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문화관광자원 리모델링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하남산단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 거듭난다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광주 하남산단 이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하남산단관리공단 회의실, 오는 26일 장성군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 7월 정부 공모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올해 1월부터 하남산단의 재생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통해 재생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국비 180억원, 시비 249억원, 민자 9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하남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6~2019년)에 300억원, 2단계(2020~2023년)에 100억원, 3단계(2024~2026년)에 3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정보통신기술(ICT)·지식산업 등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한다. 주요 의료정밀·과학기술, 기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금속산업이나 사양산업, 공해유발 업종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첨단부품소재 등으로 재배치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는 등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로 구조도 대형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너비 17.3m로 개선하고 주차장 2개 신설, 공원과 산책로 신설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광주시는 업종 재배치와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으로 미래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면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업종 재배치 등을 마무리하면 연간 생산액이 약 94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장덕·오막·안청·도전동 일원에 1983년 준공된 하남산단은 현재 594만4000㎡의 부지에 산업시설 449만7000㎡, 지원시설 25만1000㎡, 공공시설 82만2000㎡, 녹지구역 37만30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999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률 99.7%를 보이며, 연간 생산액이 12조2526억원으로 광주 산단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수출액도 41억2100만달러(광주시의 54.3%), 고용인구 2만643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 업체는 조립금속 업체가 39.3%, 화학 업체가 13.2%, 식품 관련 업체가 4.6% 등의 순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선거제 개혁 내년 2월 처리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 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계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

이해

이해

이해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윤장현 "검찰 조사 불공정" 조서에 서명 날인 거부 ▶6면
정찬주의 유럽 예술기행 체코 프라하 '카프카 박물관'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産제품, 해외 신시장 개척 도우미

전남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컨설팅, 교육, 통관애로 해결지원을 통해 전남산 제품의 수출확대에
FTA활용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One-Stop 수출입 종합 솔루션

- 관세사의 현장방문 컨설팅과 바로콜센터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 관세법인 전문관세사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확인서 정합성 확보 지원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부터 실무교육을 지원
- 홈페이지 운영 최신 FTA동향 안내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층

FTA 전문가 컨설팅

- HS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관련 컨설팅
-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 관세법인을 통한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원산지확인서 근거서류 검토 및 확인

FTA교육, 설명회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양성교육
- 인증수출자 관리전담자 교육
- 원산지관리 시스템 교육
- 지역인재 육성 FTA교육

FTA 정보제공 및 상담

- 상담전화 ☎ 062-288-3872

www.jepa.kr:444/fta/